

한우리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회복함으로

- 믿음과 신앙이 계승되는 가정을 이룹시다.
- 사랑이 넘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 세대 간의 단절을 예방합시다.

† 가정예배 순서 †

- ➡ 시작하며 “사랑해요”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엄마 아빠에게, 자녀에게
- ➡ 감 사 한 주간 감사했던 것을 하나씩 말해 보아요.
- ➡ 기 도 돌아가며 한 문장씩 기도하고,
마지막은 부모님이 기도해요.
- ➡ 찬 양 527장 어서 돌아오오
- ➡ 말 씀 사도행전 9:1-9
- ➡ 실 천 한 주일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정해요.
- ➡ 기 도 기도제목을 나누어요.
기도제목과 실천하기로 한 것을 기도해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요.(마침)
- ➡ 마 치 며 예배 후 느낀 점을 나눠요.

† 말씀 및 찬양 †

➡ 말씀 : 사도행전 9:1-9

온 가족이 각자의 성경을 펼쳐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어요.

1. 핵심구절을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9:5

오늘의 핵심구절은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혹시 마음이 답답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적은 없나요? 언제 그런 마음이 들었나요? 아마 부모님에게 혼이 났을 때, 아주 친한 친구와 싸웠을 때, 시험 성적이 나쁠 때 등일 거예요. 오늘은 집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아, 바울 선생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 선생님만큼이나 극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했어요. 이 사랑이 왜 예수님을 떠났고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를 살펴보아요.

† 말씀 나누기 †

2. 말씀을 들어요.

신약성경에서는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모른 척한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힌 바울도 있어요.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어머니 **모니카**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모니카는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기를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을 떠나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 살았어요. 몸의 쾌락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로 채워지지 않는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밀라노에 머물 때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 있을 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집어 읽어라!”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끼고 즉시 성경을 집어 읽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로마서 13:13-14** 말씀을 보았어요.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예배에 더욱 참석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아들을 위해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는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감독이 되어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에게서 교회를 보호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요.

3. 함께 나눠요.

1.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아요.
2. 돌이켜 고쳐야 할 나의 모습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꼭 고쳐!”라고 큰 소리로 격려해 주세요.

☞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정해요.

.....
.....